

전자업계, ‘K-GX’ 발 맞춘다… AI·히트펌프 솔루션 제시

(한국형 녹색대전환)

삼성 전국단위 히트펌프 보급 계획
김성환 장관에 ‘EHS올인원’ 소개

LG 히트펌프 중심 주거공간 전환
김성환 장관에 ‘스마트코티지’ 선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 관리 기술과 고효율 히트펌프를 앞세워 저탄소 주거 시장 공략에 나선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각각 ‘삼성 AI 모듈러 홈’과 ‘LG 스마트코티지’를 소개하며 고효율·저탄소 주거 솔루션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과 연계한 주거 부문 에너지 전환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이날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삼성 AI 모듈러 홈 견본 주택을 방문했다. 현장에는 박승희 삼성전자 CR 담당 사장과 김철기 DA사업부장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삼성 AI 모듈러 홈은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주택에 A



삼성전자가 14일 ‘삼성 AI 모듈러 홈’에서 히트펌프 기반 냉난방 솔루션 등을 소개했다. (왼쪽에서 네번째부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삼성전자 CR 담당 박승희 사장, 삼성전자 DA 사업부장 김철기 부사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삼성전자

I 가전과 스마트싱스 기반 솔루션을 결합한 주거 모델이다. 히트펌프와 태양광 패널, ESS를 연동하고 스마트싱스 에너지를 통해 발전량과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국내 출시를 앞둔 히트펌프 솔루션 ‘EHS올인원’도 소개했다. 실외기 한 대로 공기 냉방과 바닥 난방, 급탕을 모두 제공하며 냉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온수 생산에 재활용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 7월 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2027년까지 국내 히트펌프 보급 기반을 구축하고, 2028~2029년 전국단위 보급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제주도 내 실제 거주 주택과 경기 용인시 삼성물산 주거성능연구소에서 제품 성능과 에너지 효율 등을 검증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영국 콘월 지역의 1500세대 규모 주거단지에 히트펌프와 태양광, ESS를 결합한 에너지 시스템을 공급했다. 스마트싱스 프로를 활용해 개별 세대부터 공공시설까지 단지 내 에



LG전자가 14일 ‘LG 스마트코티지 빌리지’에서 김성환 장관에게 AI 가전과 냉난방공조(HVAC), 기술을 결합한 주거 솔루션을 소개했다. (왼쪽에서 네번째부터) LG전자 HS사업본부장 백승태 부사장,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 LG 스마트코티지 조연우 대표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G전자

너지 사용 현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LG전자도 이날 충북 진천군 ‘LG 스마트코티지 빌리지’를 방문한 김 장관에게 에너지 자립형 모듈러 주택 ‘LG 스마트코티지’를 선보였다. 현장에는 백승태 LG전자 HS사업본부장 부사장과 조연우 LG 스마트코티지 대표 등이 참석했다.

LG 스마트코티지는 히트펌프와 AI 가전, 홈에너지관리시스템(HEMS), ESS, 태양광 발전 등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한 주거 모델이다. 가전과 사물인터넷(IoT)

기기, 냉난방공조 시스템을 통합해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태양광 패널 등은 선택 사양으로 추가할 수 있다.

LG전자 역시 지난 7월 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히트펌프를 중심으로 한 주거 공간의 녹색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향후 고효율 히트펌프와 에너지 관리 기술을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과 신축·기축 공동주택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GM, 전국 155곳 뷰익 서비스 거점 운영

부평공장 서비스 트레이닝센터 공개
뷰익 ‘엘렉트라 E7’ 준비 상황 소개

GM 한국사업장이 뷰익 ‘엘렉트라 E7’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정비 인력 교육과 부품 공급 체계를 공개했다. 기존 서비스 인프라를 활용해 수입자의 약점으로 꼽히는 수리 지연 우려를 줄인다는 전략이다.

GM 한국사업장은 14일 인천 부평공장 내 서비스 트레이닝센터를 언론에 처음 공개하고 엘렉트라 E7의 애프터서비스(A/S) 준비 상황을 소개했다. 엘렉트라 E7은 GM이 국내에 새로 선보인 프리미엄 브랜드 뷰익의 첫 모델로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스포츠유틸리티차(SUV)다.

GM은 차량 판매와 동시에 전국 115곳의 뷰익 서비스 거점을 운영한다. 기존 웨보레 서비스센터 가운데 교육 이수 여부와 특수공구·시설 투자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고전압 배터리를 수리할 수 있는 거점은 기술지원센터 3곳을 포함해 53곳이다.



GM 한국사업장 서비스 트레이닝 센터 김윤용 교관이 서비스 트레이닝 센터 교육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GM한국사업장

서비스 트레이닝센터에서는 신차와 숙련도별 정규과정, 방문교육 등 연간 30회 이상의 교육을 진행한다. 서비스센터는 수행할 수 있는 EV·PHEV 정비 범위에 따라 레벨 1부터 4까지 구분한다. 전동화 기술 교육을 받은 누적 인원은 1409명이며 최근 5년간 고전압 집중 교육을 이수한 인원은 369명이다.

GM은 2012년 알페온 하이브리드를 시작으로 약 15년간 전동화 차량 정비 경험을 쌓았다. 볼트 EV 배터리 약 1만3000대

를 교환한 경험도 엘렉트라 E7 정비에 활용 계획이다.

일상적인 점검과 소모품 교환은 가까운 서비스센터에서 처리하고 고난도 작업은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거점으로 연결한다. 고전압 배터리 내부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현재는 배터리 어셈블리 전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장은 3단계 기술지원 체계로 대응한다. 지역 담당자가 먼저 차량을 점검한 뒤 차종별 엔지니어와 연구소·품질 조직이 원인을 분석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부평 하이테크센터가 차량 로그와 정밀 데이터를 살핀다.

해결한 정비 사례는 전국 서비스 네트워크와 공유해 유사 고장 대응에 활용한다. 박정수 GM 한국사업장 애프터서비스 본부 정비기술 및 고객지원 담당 상무는 “글로벌에서 습득한 정비 기술을 전국에 전달해 모든 고객이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승혁 기자 sh95@

삼성전자, 헬스 앱 개편

수면·러닝 등 코칭기능 강화

삼성전자가 삼성 헬스의 수면 코칭에 필요한 기록 기간을 단축하고 생활 습관 변화에 따른 맞춤형 관리를 강화했다. 달리기 훈련도 세분화해 숙련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삼성전자는 14일 삼성 헬스 앱의 수면 코칭과 러닝 코치 기능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이용자가 자신의 신체 리듬과 운동 능력에 맞는 조건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규 기능은 앱 업데이트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원되며 대상과 제공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정부 전력수요 전망, 하향 시나리오 빠져”

반도체·AI 데이터센터 투자계획을 반영한 정부 전력수요 전망에 ‘하향 시나리오’가 빠져 과잉투자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기술 변화에 따른 수요 불확실성과 기업의 실제 투자 조건을 함께 검토해 전력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메가프로젝트, 다음 질문에 답하다: 수요 검증과 전력 조달, 기업 입지’ 토론회를 개최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에너지전환포럼이 공동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력수요 전망과 조달 방

안, 비수도권 투자 조건을 논의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 재전망에 상향 시나리오는 제시됐지만 하향 시나리오는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석 전문위원은 미국 닷컴버블 당시 전력수요 확대 전망이 실현되지 않은 사례를 들어 단기 호황에 근거한 설비투자를 경계했다. 그는 “한 번 투자를 하게 되면 수요가 변화하더라도 되돌릴 수가 없다”며 “전력 공급 계획을 세우기 전에 수요 전망부터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

조현범 회장 “미래 리더, ‘바텀업’ 혁신 필요”

한국엔컴퍼니그룹, 주니어보드 워크숍

조현범 한국엔컴퍼니그룹 회장이 젊은 구성원들에게 현장의 문제를 직접 찾고 해결책을 실행하는 ‘바텀업’ 혁신을 주문했다.

한국엔컴퍼니그룹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미래 리더 양성 프로젝트 ‘주니어보드’의 3분기 워크숍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행사에는 조 회장을 비롯한 그룹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주니어보드는 근속 6년 이하 직원들이 조직문화와 업무 과정에서 개선할 과제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주니어보드 4기에는 그룹 6개 계열사에서 35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한온시스템 합류로 참여 인원이 40명으로 늘었다.

참가자들은 기존에 제안한 조직문화·업무 혁신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과 적용 조건을 논의했다. 이어진 경영진 간담회에서는 그룹의 강점과 일하는 방식, 인재 육성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조 회장은 기업문화가 구호가 아니라 구성원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실행하



조현범 한국엔컴퍼니그룹 회장이 주니어보드 구성원들과 셀카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엔컴퍼니그룹

는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강조했다. 경영진이 정해진 문제를 푸는 데 머무르지 않고 현장의 구성원이 직접 문제를 찾아야 실행 의지도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래 리더에게 필요한 역량으로는 호기심과 다양한 경험을 꼽았다. 조 회장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 머무르지 말고 모르는 영역에 호기심을 갖고 탐색해야 한다”며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면서 자신만의 관점을 가꾸는 것도 미래를 이끌어 갈 리더에게 필요한 역량”이라고 말했다.

/이승혁 기자 sh95@

LG전자, 액침냉각 기술·설비 상용화 추진

美 GTC·GS건설 업무협약 체결

LG전자가 액침냉각 상용화를 추진하며 AI 데이터센터 냉각 사업 확대에 나선다. 기존 공기냉각과 액체냉각에 이어 액침냉각의 성능과 신뢰성을 확보해 데이터센터별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 역량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에서 GS건설, 미국 액침냉각 전문기업 GRC와 데이터센터 액침냉각 기술 및 관련 설비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액침냉각은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중앙처리장치(CPU) 등 전자장치를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수 냉각유에 직접 담가 열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다만 데이터센터에 적용하려면 냉각장비뿐 아니라 건물 구조와 배관, 전력 인프라, 유지보수 공간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이에 3사는 장비와 건축·설비를 연계한 실증을 통해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통합 솔루션과 표준설계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공동 개발에서 LG전자는 보유한 냉각 기술과 운전 데이터를 제공하고, 표준설계에 맞춰 냉각 솔루션을 구축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